



FIFTH STOP TB TECHNICAL ADVISORY GROUP (TAG) MEETING FOR THE WESTERN PACIFIC REGION

15 ~ 18 March 2006

Busan Marriott Hotel

BUSAN, REPUBLIC OF KOREA



제5차 세계보건기구 결핵퇴치 기술자문위원회 부산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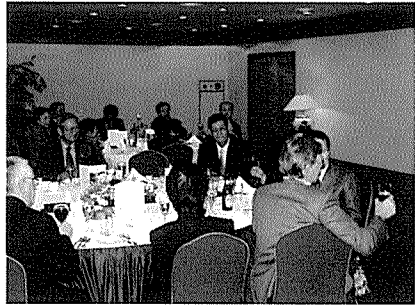
글: 김강미경(결핵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서태평양지역의 결핵퇴치를 위한 최고 자문기구인 기술자문위원회(TAG ; Technical Advisory Group) 제5차 회의가 3월 15일부터 4일간 세계보건기구의 주관 아래 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부산광역시 후원으로 부산 해운대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세계보건기구 등 10여 개의 결핵 관련 국제기관과 37개 국가로부터 약 80여 명의 국내외 결핵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인 오미 박사(Dr. shigeru Omi)는 개회사에서 아름다운 부산,

특히 결핵관리가 발전된 우리나라에서 뜻깊은 5차 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정부당국에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종구 보건정책관과 부산광역시 이권상 행정부시장은 지난 5년간 서태평양지역 결핵감소에 기여한 동 자문위원회의 활약을 치하하고 따뜻한 환영사로 맞이하였다.

결핵퇴치 기술자문위원회는 전세계 결핵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서태평양 지역의 1999년 결핵 위기상황 선언과 함께 국가간 강화된 상호협력만이 지역 내 결핵확산을 억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지역의 STOP TB 목표달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전략안 도출 및 협력방안,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 결성된 기구이다.

회의는 매년 또는 격년제로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네덜란드 왕립결핵연구소 약 브룩크만 박사 등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결핵전문가 9명이 기술자문위원이며 결핵 연구원장 출신인 김상재 박사가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고 역시 초창기위원인 일본 결핵연구소장 도루 모리 박사는 이번 부산 회의에서 명예롭게 위원직을 사임하였다.

본 회의초반에 기술자문위원회는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던 2000-2005년까지의 1단계 전세계목표인 결핵치료 성공률 85%, 환자 발견률 70%에 서태평양지역이 가장 먼저 도달했다고 평가하였다. 이 성과달성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던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 6개 결핵 고위험 국가에 축하와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였으며 세계보건

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오미 박사의 탁월한 지도력과 안동일 박사 결핵팀의 빛나는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서태평양지역사무소의 결핵팀장인 안동일 박사는 결핵연구원 출신으로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서태평양지역 라오스 대표로 승진하여 마닐라를 떠난다.)

3박 4일 동안 쉬틈 없이 진지하게 속개된 회의는 핵심 의제인 현재 서태평양지역 결핵실태와 전망을 반영하는 결핵 및 HIV 중감염, 다제내성결핵(MDR-TB), 공공민간 협력결핵사업(PPMD)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1단계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기반으로 2006-2010년까지의 제 2단계 목표를 재구성하고 전략계획을 권고하였다.

제안된 서태평양지역 결핵관리 전략계획 2006-2010의 핵심목표는

- 결핵환자 발견목표 70%이상으로 상향조정
- 다제내성결핵(MDR-TB)의 90% 이상에 2차 항결핵제 보급
- TB-HIV에 반응하는 직접투여단기치료

(DOTS)를 적응시키고 90% 이상에게 에이즈 치료약 공급

- 민간 병의원 치료환자의 90% 이상 보건소 연계하에 양질의 치료 보급 등이다.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서 4개 핵심 목표에 도달하는 지역전략계획과 2015년 새천년 개발목표 (MDG)에 도달하기 위하여

- 결핵과 HIV : 지역의 결핵관리 증가에 따라 빠르게 확산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행 확산의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활동의 긴박감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특히 캄보디아에서의 이 주제를 다루는 중요한 진행을 인지한다.
- 다제내성결핵(MDR-TB) : 다제내성결핵(MDR-TB)의 실태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2006 - 2010 지역전략계획의 기초항목에 최우선으로 배치한다.
- 다제내성결핵 관리를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 가장 위험이 있을 것이라 예측되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을 주목한다.
- 2006년말까지의 다제내성결핵 문제를 다루는 지역강화(능력을수입하고, 표준을 정착)를 발발시키기 위해 Green Light Committee와 협약한다.
- 치료에 쓰이는 모든 약물의 품질 보장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다제내성결핵 관리의 질을 보장한다.
- 결핵치료를 위한 정책이 국가적인 결핵 프로그램에 의해 분명히 보장된다는 것을 인지하



고 국제적인 표준결핵치료 사용을 위한 부채꼴 협약과,

- 참여국가와 협력하여 적합한 경험의 교환과 지지를 촉진하는 협약의 계획을 발전, 특히 실험실 용적의 강화와 다제내성결핵의 관리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 검사실 업무에 생명안전부분을 포함한 업무내용의 표준화를 공식화할 것 등이 채택되었다.

그 외 2006-2010 국가적 계획수립을 위한 6개 결핵 고위험 국가에 대한 국가별 권고사항과 기타 중간부담 국가에 대한 전체 권고사항이 논의되었다. 회의 후반에 부산시 4개 보건소 견학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우리의 결핵 정보감시체계를 경험한 각 국가 대표들과 결핵 전문가들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당일 신고환자수를 바라보며 감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정부 대표 격으로 참석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명예소장인신 한상태 박사께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결핵이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결핵균들

이 'Stop-TB' 라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 탓일 거라는 유머 넘친 농담을 던져 유쾌한 분위기가 되었다. 대회장인 오미 박사는 초청만찬에서의 인사말 대신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를 우리말로 불러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이어서 대한결핵협회 김성규 회장은 분위기에 맞는 즉석인사말과 건배제를 통해 'Stop' 를 선창한 후 모든 참석자들이 'TB' 로 답례케 하여 우호적인 분위기를 북돋웠다. 이러한 분위기는 폐회식 까지 이어져 각국가의 참석자들은 김성규 회장과 함께 'Stop' 과 'TB' 구호를 두세 차례나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며 결핵도료로서의 결의를 약속로 나누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수십 개 국가의 결핵관리대표자들과 국제기관이 참석하는 대규모의 공식국제행사인 만큼 진행에 차질이라도 생길까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깔끔한 국제도시로 재정비된 부산이 갖는 편리함과 웃어른들의 당당하고도 사려 깊은 외교자세, 적극적으로 임해준 진행지원팀의 노력으로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많은 외국인 참석자들로부터 진심어린 감사인사를 받았다. 동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부산광역시와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과 부산지부, 국제결핵연구센터에 진행지원팀의 일일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卍



대한결핵협회 · 세계보건기구 간 양해각서 체결

대한결핵협회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 결핵퇴치사업의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동 지역의 결핵관리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06년 3월 16일 대한결핵협회 김성규 회장 이하 결핵연구원 직원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인 오미 박사와 결핵팀 전원이 참석한 양해각서 조인식에서 오미 박사는 그동안 결핵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활동으로 동지역의 건강증진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명하고 세계보건기구의 파트너로서 아시아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결핵교육 훈련 등의 분야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동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은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서태평양지역 국가 결핵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결핵교육, 훈련사업과 결핵관련 주요 국제워크샵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위한 과정 자문, 전문가파견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2006년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결핵균검사 연수과정, 결핵관리 심화 국제연수과정, 결핵유병률 조사를 위한 국제워크샵 등 대한결핵협회와 서태평양지역 세계보건기구(WPRO)간에 여러 가지 협력적인 활동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 즉, 서태평양과 북한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지역(SEAR)의 결핵관리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